

## 총선 준비 정치 신인들, 눈물겨운 '얼굴 알리기' 경쟁

의원들 보고회·현수막 걸고 홍보  
신인은 각종 규제에 묶여 속앓이  
발품 팔아 인지도 높이기 총력  
선거법 등 정치활동제도 개선 시급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눈물겨운 '얼굴 알리기' 전쟁에 나서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회나 현수막을 통해 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공식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제도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신인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얼굴 알리기 등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매달 지역구 곳곳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수십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 홍보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옥외광고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일부 정치신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모함'도 하고 있다. 현수막 게재부터 사실상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들 간 불공정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한,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명함이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안 되며, 당을 상징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식선거법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선거일 기준 120일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이 1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신인들은 최대한 지지세력을 동원해 정책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문회 조직을 통해 동문을 일일이 찾아 다니거나 지인들이 서너 명만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는 등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매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중이고, 광주 광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법률 특보인 박군택 변호사도 최근 '지하철 2호선' 광산 경유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오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 한일 8개 시도현 지사들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동성명문 발표에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라오카 쓰구미사 아마구치현 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오차이아 유지 사가현 부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핫토리 세이카로 후쿠오카현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이시 겐고 나가사키현 지사,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여수=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구갑 출마에 나서는 조인철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도 30일 정부 예산 확대 촉구 등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구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전남의 경우는 정치신인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현수막 게재 등이 어려우니 말 그대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지역 조직이 약한 만큼 시장과 축제 장소 등을 직접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선거구 자체가 4개 군인데다 지역도 넓어 발품 파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하다"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다니는 것이 정치신인들에게는 최대 선거 전략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매년 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법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한일 8개 시·도·현 한일해협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김영록 전남지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서 제안  
한일 크루즈 공동 유치·청소년 교류 등 실무회의서 논의키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8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한일해협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전남도가 부산·경남·제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일본까지 확장하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집적돼 있는 이들 지역의 인적·물적·문화 교류를 늘리고, 그로 인해 협력의 성과가 각 지역의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김 지사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관광·문화 축전과 연계해 거대한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이 프로젝트에 7개 시도현 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8개 시도현 지사들은 김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한일 크루즈 사업, 청소년 인적 교류 등의 실질적인 교류 사업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한국과 일본 8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제안한 관광객 상호 유치 등 양국 협력에 적극 노력한다는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이틀간 전남도 주최로 여수에서 열리는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8개 시도현지사는 변함없는 우호관계 속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기여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 한일 각 시도현이 개최하는 문화경제 사업의 상호 지지와 협력 ▲2024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의 사가현 개최 등이다.

이에 앞서 열린 지사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 한국 4개 시·도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아마구치, 일본 4개 현, 실무진 7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관광객 및 국제행사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방안을

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 시도현 지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나가사키현은 '관광활성화 대책', 부산시는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아마구치현은 '아마구치현의 관광진흥', 경남도는 '함께 그리는 한일해협관광의 미래'를 발표했다. 사가현은 '유일무이한 곳 사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재도약', 후쿠오카현은 '관광활성화 대책'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로 대도약하는 관광수도 전라남도'를 주제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남해안 관광 벨트, 글로벌 관광 중심 대도약 등 전남이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전남도는 2025 포퓰러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지사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그 화해와 평화, 상생과 협력 정신을 이어받아 한일 8개 시도현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시대를 열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본사 인사

▲ 임동욱 : 서울지사장  
겸 사업담당 이사  
(11월 1일자)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11월 1일(수)

##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훈련대상 전라남도, 영광, 함평, 장성, 무안